

전주세계소리축제 “예산 낭비 껌데기” 지적

전북 예술가 참여 '21%' 저조
소개와 달리 전주 외 확장 미흡
도민 참여 프로그램 거의 없어
막대한 예산에도 실질 효과 제한

24회째를 맞은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지난 13일 개막해 닷새 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본향의 메아리'를 주제로 77개 프로그램, 91회 공연을 선보인 이번 소리축제는 폐막 후 높았던 관심에 비해 문제점들이 속출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연간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껌데기 축제에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과 세계소리축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들만의 소리축제였다는 아쉬움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본보는 2차례에 걸쳐 세계소리축제의 문제점을 보도한다. <편집자주>

2001년 시작돼 24주년을 맞이한 '전주세계소리축제'는 한국의 전통음악인 판소리를 근간으로 세계 음악을 한 자리에서 즐기는 국제적인 문화예술제이다.

소리축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가 주관하며, 매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 14개 시·군에서 개최되고 있다.

축제의 당초 취지와 달리 소리축제를 통해 전북의 소리 문화가 진작되고 활성화돼 세계화될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전북의 소리문화는 위축되고 약화해 소멸에 다가가고 있다는 평가다.

22일 전북지역 예술계 등에 따르면 이번 소리축제에 일반 도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찾기 어렵고, 축제에 참여한 예술가 중 전북 태생 예술가는 단 13팀에 불과했다.



장애인 자립 사회
민관 함께 만든다

전북도는 지난 22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사)창해복지재단, ㈜한남상사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를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북자치도>

축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전북도 예술가 비율은 약 21%를 보였지만 실제 인원을 집계할 경우 비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세계축제는 전통음악에 집중하며 그 뿌리인 전북 전주시를 중심으로 두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도내 예술가들의 비율은 빈약하고, 전북 전역으로의 확장성은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전주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본 축제 기간 이전 진행되는 찾아가는 소리축제와 완주군 아원에서 진행되는 전주의 아침과 스페인 포커스 뿐이었다.

그 외의 프로그램은 모두 소리문화의 전당을 중심으로 전주 한옥마을 등 전주에서만 접할 수 있다.

축제 측은 개최지를 전당 및 '전북도

일대'라고 소개했다는 말과 달리 외연 확장과 이로 인한 지역 관심도 하락 등으로 전주 외 지역이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전문가는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소리 중심 행사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외부 중심의 주최자들이 벌이는 자본주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축제 본연의 본질 및 전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A씨는 "소리축제는 축제라고 하기엔 시민들이 즐기지 못하는 축제로 변질됐다"며 "소리축제의 뿌리가 전주를 중심으로 두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도내 소리꾼들은 수도권으로 올라갔다. 향후 5년이면 전주의 소리는 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관계자는 "매년 같은 예술가를 섭외할 수 없어 한해는 타지역 예술가 섭외 비율을 높게, 한해는 도내 예술가들 비율을 높게 섭외를 진행한다"며 "그렇다고 도내 예술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내 예술가를 중심으로 섭외하되 퍼센트 비율에서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성민 기자

윤준병 “농촌진흥청 부서 이전 재검토 결정 환영”

윤 의원 “농진청부서수원이전 지역균형발전 역행하는 일”
“남은 부서 모두 전북 이전해야”

최근 농촌진흥청이 조직 개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일부 부서와 인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하는 농진청의 행태를 강력히 지적하고 도민들의 우려를 전달,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이 같은 중단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이전 중단(전주 잔류) 입장을 만수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한다”며 “국가의 농업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인 농촌진흥청이 단순한 행정 효율성을 넘어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초 농촌진흥청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부서 및 기능과 일부 인력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식생활영양과와 기능성식품과가 수원으로 이전하게 됐다.



윤준병 의원

공기관 이전 및 균형성장 기조에 역행하는 일이자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일이며, 전북도민과 농업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의 원회관 사무실에서 농촌진흥청 책임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저해 및 정부가 추진해온 혁신도시 정책의 취지와 배치되는 행위임을 지적하면서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 결과, 농촌진흥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저해·연구연락 저해 등 외부 우려를 고려하여 수원 이전에 대해 재검토하고 방향을 재고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수원에 배치된 부서와 인력까지도 모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농생명산업의 중심지인 전북과 농촌진흥청이 더욱 큰 시너지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윤=김영목기자

道, 발달장애인 자립 일자리 민관 협력 협약 체결

창해복지재단·한남상사 등 협약
미투사지휴게소 활용 직업훈련
현장실습으로 취업 연계 지원

전북도는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사)창해복지재단, ㈜한남상사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를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이용한 관리처장, 창해복지재단 김민진 이사장, 한남상사 이원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

여 확대와 자립을 돕기 위한 지속 가능한 고용 모델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 기관들은 △직업훈련 지원 △현장실습 및 근로환경 조성 △취업 연계 등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익산 미투사지 휴게소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3~5명을 회차별로 선발해 6개월간 직업훈련, 멘토링, 사회성 교육 등을 제공한 뒤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자들은 휴게소 내 편의점 물품 판매, 카페 바리스타, 위생관리 등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된다.

각 기관의 역할도 분담했다. 전북도는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지원과 협력

조율을 맡고, 한국도로공사는 근로 기회 제공과 향후 지역 고용 연계를 검토한다. 창해복지재단은 직무 분석과 사전 교육, 현장 적응 지원을 담당하며, 휴게소 운영사인 한남상사는 직업훈련과 현장실습, 급여 지급 등 실질적 직무 체험을 뒷받침한다.

전북도는 향후 성과에 따라 일자리 모델을 다른 휴게소로 확산시켜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넓히고, 포용사회의 모범 사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이와 관련 “이번 협약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도에서도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2026년 농생명산업지구 신규 신청 접수

내달 5일까지 시군 대상 접수
인허가 특례·공공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농업 혁신 기대

전북도가 농업 혁신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2026년 신규 농생명산업지구 신청을 오는 9월 5일까지 접수한다.

농생명산업지구는 농생명자원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이 집적화된 전략적 거점으로, 전후방 산업과 긴밀히 연계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사업으로 지난해 전북도는 남원 ECO 스마트팜, 익산 동물약품, 진안 홍삼 등 7개 선도지구

를 선정했다.

이 중 남원·진안·고창 3개 지구는 올해 6월 공식 지정 고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나머지 4개 지구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올해 신규 지정은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정읍·김제·순창·부안 등 8개 지구를 대상으로 단계별 컨설팅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이 임지 여건, 산업 연계성, 경제성,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해 예비지구 선정에 필요한 실행모델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신청 접수마감 후 9월 중 농

생명지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1차 서류·발표 평가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예비지구를 확정할 계획이다.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인허가 특례가 적용되고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공공투자 유치가 활성화된다. 산업 인프라 구축, 혁신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은 농업 혁신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지역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24억원 투입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추석 전 재난지원금 11억 지급
공공시설 복구비 13억 확보
농·산림·가축 피해 보상 100%

전북자치도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추석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복구에는 총 24억 원이 투입된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북도내에는 평균 214mm의 강수량이 기록된 가운데 순창군 순창읍 457mm, 남원시 뱀사골 465mm 등 남부 지역에 호우가 집중됐다. 군산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농작물 침수 141.8ha, 주택 침수 16동, 산림작물 10.7ha 등 총 2,581건(사유 2,570건, 공공 1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약 15억 원이며, 전국 피해액의

0.1% 수준으로 인명 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는 없었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총 24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11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3억 원이다. 도는 정부의 추가 지원 정책에 맞춰 위로금과 보조금을 확대한다. 주택 침수 가구에는 기존 350만 원에서 두 배인 700만 원, 소상공인에게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농·산림작물, 가축·수산물 피해에 대한 지원율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아울러 국제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18개 분야 간접지원 서비스도 병행된다. 공공시설 피해는 지방하천 7건, 산사태 2건, 소하천 2건 등 총 11건으로 13억 원을 투입해 조속히 복구에 나설 예정이다. 지방하천 복구에는 도비 50%를



전북자치도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폭우 피해 고창 수박농가를 찾은 김관영 지사. <사진=전북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비를 활용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하여 빠르게 일상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을철 태풍에 대비

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취약 지역 예찰 및 정비를 지속 실시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피해 시설은 신속히 복구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BS법 본회의 통과…방송3법 모두 국회 처리 완료

민주당, 야권 반대에도 강행
EBS 이사 정원 9→13명 확대
추천 권한 국회·시청자 분산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강력 추진해온 ‘방송3법’ 모두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EBS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0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전날 EBS법 상정하자, 필리버스터로 반발했고,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 민주당 주도의 국회는 표결에 들어갔다. 앞서 국회는 방송3법 중 지난 5일엔 KBS법(방송법 개정안), 21일엔 MBC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방송 3법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

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바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EBS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 정원을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에 분산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국회(5명),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1명), 학회(1명), 교육단체(2명), 교육감 협의체(1명), 교육부 장관(1명) 등으로 권한을 나눠 구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과 재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경우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김영록기자

‘쌀가공산업 발전·식량안보 강화’ 국회 토론회 개최

과잉 생산 쌀, 가공산업 활용
민관 협력 안정적 원료 공급
농업인·업계 등 500여명 참여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식량,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한 해법 찾기’를 주제로 한 쌀가공산업 발전과 식량안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국회 토론회는 윤 의원을 비롯해 서상석·송옥주·이원택·임호선·주철현·문금주·문대립·이병진·임미애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고려대학교 한국식량안보연구소,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주관했다. 특히 쌀 생산자단체 농업인 및 쌀 가공식품 생산업체 등 약 500여명이 토론회에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윤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을 둘러싼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는 식량안보 위기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상 기후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전쟁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들은 주요 곡물의 생산과 유통을 위협하고 있으며, 자급률이 낮은 나라일수록 그 충격은 더욱 직접적이고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춘진 대한민국헌정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상현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본부장이 ‘쌀가공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 전략’을, 박현진 고려대학교 한국식량안보연구소 소장이 ‘식량안보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의제 발표에 나섰다. 조상현 본부장은 “쌀가공식품산업은 과잉 생산된 쌀을 흡수해 농가소득을 지키고, 국가 식량안보를 뒷받침하는 핵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식량,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한 해법 찾기’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심 산업이라”며 “공급 변동성이 곧 리스크인 만큼 단기 처방을 지양하고, 가공용 쌀 원료화 정책과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정적 원료 공급체계를 구축해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변상문 농림축산식

품부 식량정책관, 박현진 고려대학교 한국식량안보연구소 소장,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조상현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본부장, 김중욱 ㈜시아스 부사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서울=김영록기자

염영선 도의원, 자전거로 정읍 문화유산 탐방

정읍 240km 문화유적지 누비
“K컬처 본산 정읍 잠재력 발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역대급 폭염을 뚫고 3일간에 걸쳐 장바구니 자전거를 타고 정읍시 소재 문화유적지, 240km를 탐방하는 투혼을 발휘했다. 염영선 의원은 지난 13일, 18일, 20일에 각각 조선왕조실록 보존터(내장상동), 무성서원(칠보), 임병찬 창의 유적지(산내), 김명관 고택(산외), 모종사(웅동), 피향정(대인), 보천교 중앙본소(임암), 보화리 석조 이불입상(소성), 남북리 오층석탑(고부), 지사리 고분, 백정기 의사, 나용균 선생 생가(영원), 말목장터(이평), 황토현 전적비(덕천), 화호리 구마모도 농장가옥(신태인), 정토사 목조관음보살좌상(정우), 남고서원(북면), 천곡사지 칠층석탑, 영주정사(농소동), 영모재(상교동), 정혜사 석조보살입상(초산동), 정읍향교(장명동), 송우암수명유허비, 충렬사(수성동) 등을 방문했다. 염 의원은 “바야흐로 21C는 K컬처의 시대다. 대한민국 K컬처의 발



염영선 도의원

생지는 전북특별자치도이고 정읍은 그 본산이다. 문화가 곧 경제로 문화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쌓인다. 지방소멸·인구절벽 시대에는 문화가 곧 답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자전거 탐방을 통하여 정읍에 소재한 어마무시한 문화유산을 체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잠재력을 발견했다. 정읍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문예부흥 르네상스 시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지난날 8월 도내 9개 시군에 소재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장바구니 자전거를 타고 탐방했고 10월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하여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로 유족수당 지급에 앞장선 바 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 사무처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전달
현장 경험 강사 핵심 업무 교육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후 늘고 있는 신규공무원 및 시군전입 직원들의 의회사무처 공직생활을 돕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달초 지방의회 개요 및 법령해설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을 제작해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직원들은 전문위원실과 과·팀 별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면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문제를 풀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 18일부터 22

일까지 5일동안 의총회의실에서 사무처 직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의회사무처직원 의정지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하루 2~3시간씩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이루어진 교육에는 현장 경험이 많은 내외부 강사 7명이 나서 지방의회업무에 필수적인 자치법규 입안 방법 절차 및 지역정책에 대한 국회 입법 방향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들의 학습 동아리에 대한 구성 및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10월중에는 올해 채용된 신규.전입직원 16명을 대상으로 전북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현장 학습도 실시한다. /장정철 기자

한동훈 “계엄 막는다”…김건희 발언 논란 부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최근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난 뒤 자신의 배신을 언급한 것과 관련 “김건희 여자, 신평 씨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소리가 오갔는지 모르나, 저는 무한한 영광을 뱃가로 준다해도 매관매직과 불법계엄을 막는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그것이 국민

을 배신하지 않는 길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무한한 영광이 기다렸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신 변호사의 전언이 김 여사 발언이 아니라며, 접견 절차를 악용한 부도덕·비윤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영록기자

올바른 환기법

1일 최소3회, 10분이상

냉방 중에도 환기하기

선풍기를 활용하자

요리와 청소 후에도!

전주시, ‘기초학력 학습지원사업’ 추진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중학생 2~3학년 100명 대상
1인당 20만원 지원

전주시는 2025년도 사회보장기금 활용
한 ‘기초학력 학습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 22일 밝혔다.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의 중학생 2~3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진
행된다. 특히 사업은 학습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오는 9월 말 1인
당 20만원 기초학력 학습지원비가 지원
된다.
최근 저소득 가정 청소년은 사교육 접
근 어려움 등으로 학습 격차가 크게 나타

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저소득 청소년
들의 학습 부진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기
본 학습 능력을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준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
을 받아 지원서와 성적증명서, 개인정
보 동의서를 준비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
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9월 15일

까지다.
김현욱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기초
학력은 모든 배움의 출발점이자 학생들
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
이라며 “이번 학습지원사업이 어려운 환
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시행

3만㎡ 이상 건축물부터 적용

전주시는 ‘정보통신공사사업 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
수 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
혔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 내 통
신 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통
신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 관리주체는 정보통
신설비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정보
통신공사 업체 또는 용역업체에 유지보
수를 위탁해야 한다.
제도는 건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
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상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공공주택,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제외) 시행일 2025. 7. 18 ~ (연면적에 따른 단계적 시행)		
건축물 연면적	시행일	선임기간
3만 제곱미터 이상	25. 7. 18.	26. 1. 18. 까지
1만~3만 제곱미터 대면	26. 7. 18.	26. 8. 18. 까지
5천~1만 제곱미터 대면	27. 7. 18.	27. 8. 18. 까지

신고방법 신고서 발송처
제출처 전주시청 7층 정보통신과 통신팀
문의 063-281-2200

올해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이
대상이며 내년 7월 19일부터는 1만㎡ 이
상 3만㎡ 미만 건축물도 범위가 확대된
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도 시행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다시 30일 이내
에 전주시청 정보화정책과에 신고해야
한다.
유지보수 관리자는 건물 규모에 맞는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춰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20시간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
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반기마다 한 차례 이상 설비 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성능 검사를 시행해야 하
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관할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2026년 1월 18일까지는 관리
자를 선임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
료를 부과하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과 공식 블로
그(blog.naver.com/jeonju_city)를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이며 전주시 정보화정책과장은 “정
보통신설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
심 기반시설”이라며 “안내우편과 온라인
홍보, 현장 방문 안내를 함께 추진해 건
물 관리주체들이 제도를 조기에 숙지하
고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풍남동 찾아가 시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진행

우범기 전주시장이 시민들의 삶 속으
로 찾아가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혁
을 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장정
을 이어가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22일 완판본문화관 세
미나실에서 풍남동 주민들과 만나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며 소
통하는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행사에 참여한
풍남동 통장과 주민자치협의회, 자생단
체 회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준비된
변화! 힘차게 뛰는 전주!’라는 시청 비전
을 제시하고, 시청 운영 방향을 공유했
다.
특히 우 시장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
치 △완주·전주 통합 △전주종합경기장



우범기 시장은 22일 풍남동 주민들과 만나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며 소
통하는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사진=전주시>
부지 MICE복합단지 조성 △2025년 제1
회 전주드론축구월드컵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
다.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풍
남동 주민센터 신축 △전주한옥마을을 우

오수 분리사업 △한옥마을을 경계지역 주
민 주차 지원 등 풍남동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와 생활 속 불편 사항에 귀를 기울
였다.
시는 찾아가는 시민과의 만남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적극 해
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 나갈 계획
이다.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는 이날
풍남동에 이어 오는 26일 완산동에서 이
어질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위대한 전주시민
들과 함께 대변혁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수많은 꿈이 하나
둘씩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언제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
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크고 강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개헌운동본부, ‘한미정상회담’ 굴욕 외교 경고

국민주권 수호국익중심 강조

전북개헌운동본부 상임대표단은 지난
22일 추가 협상에 따른 미국의 관세 15%
인상 요구에 대해 행정부는 분별한 국익
중심으로 단호하게 맞서 줄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상임대표단은 먼저 방위비 분담금 요
구에 대하여 “미국은 ‘동맹현대화’라는
미명하에 한국을 대중국 전조기지화로
만들어 미국 배 불리는 데만 급급 할 것
이다”고 단호히 언급했다.
특히 상임대표단은 식량주권 확보에
있어 “농업과 민생을 팔아넘길 셈인가?”
라고 쓴소릴 냈다.
이유로 정부의 “개방하지않겠다” 발표



와 맞물려 있는 트럼프 “개방하기로했
다” 문제점을 들었다.
만약 트럼프 말이 맞다면 이는 “농민과
국민을 배신한 주권 포기 행위”라며 표

명했다.
상임대표는 이민경 민주노총전북본부
장, 황양택 전국도연맹농민회 의장, 차상
철 교육연대 상임대표, 한병길 전북평화
연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 송
미옥 전국여성농민회 전북연합, 김용실
전북지역 민주동맹회 연합 상임대표, 이
석환 전북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
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대표단은 마지막으로 새만금 미해
군기지mro 정비보수의 건에 관련해 “국
민 및 관계자들의 협이나 조율없이는 위
험한 시설이기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에대해 협의 협상카드로 이용되어서
는 안된다”고 못박아 전달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제8회 치맥가맥 페스티벌’ 개최

모래내시장길 특설행사장

전주시 ‘제8회 치맥가맥 페스티
벌’이 덕진구 모래내시장길 특설행
사장에서 22일과 23일 양일간 펼
쳐진다.
전주모래내시장상인회(회장 김
병권)은 “지원한 생맥주와 함께 다
양한 안주를 맛보며 치맥가맥 축
제를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에는 연인원 4000명 이
상이 참여해 전북지역 전통시장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 축제는 모래내시장 상
인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먹거리
를 중심으로 당일 생산된 생맥주
가 판매됐다. 또 인기 가수 축하 무
대 등 문화공연도 펼쳐진다.
전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
장 상인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
울리고 소통하며 전통시장이 지역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권 모래내시장 상인회장은
“매년 많은 분이 행사를 기다리고
찾아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내년에도 한층 더 풍성하고 재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 덕진구, 체납관리자 ‘특별 직무교육’ 실시

안정적 지방재정 운영 도모

김종성 덕진구청장은 체납관리자
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 직무교
육을 준비해 실시했다.
직무교육은 2025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직무교육은 체납처분 세
부 방법에 대한 실무 위주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시청 세외수입 징수
담당 직원들도 함께 교육에 참여했
다.
직무교육은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를 대상으로 지난 22일 덕진구청 정
보화 교육장에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에는 △대출·체
납처분(압류, 공매) 및 정리보류 개념

△부동산 및 차량 압류등록 등 전산
시스템 활용 방법 △세외수입 전산시
스템 체납 처리 및 분납 방법 등 세외
수입 체납처분 관리 등을 담고있다.
아울러 교육 후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와 대응 요령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담당자
들의 이해도가 향상됐다.
김 덕진구청장은 “현재 경기둔화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어 부서 간 협업과 매우 중
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외수입은 시 재정을 책임지는 필
수적 자주재원으로써 구청 10개 부서
등에서 개별 법령에 따라 부과 징수
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행복나라요양병원 현장 점검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지
난 22일 요양시설 화재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덕진구 소재
행복나라요양병원 관서장 현장방문
행정을 실시했다.
행복나라요양병원은 64개 병실,
277병상 규모의 의료시설로 현재 270
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다.
이들 중 2/3가 외상환자로 화재 발
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2023년 9월 정읍

한서요양병원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와 방화문이 즉각 작동해 340여명의
환자가 안전하게 대피한 사례를 소개
하며, 시설 관계자에게 피난계획 수립
과 초기 대응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이번 점검을 계
기로 관내 요양병원과 병원을 대상으
로 맞춤형 화재예방 활동과 정기 안
전컨설팅, 관계자 교육·훈련을 확대
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롯데마트 전주점 안전교육 실시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롯
데미트 전주점에서 진행된 민방위 시
범훈련과 연계해, 마트 직원 30여명
을 대상으로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했
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주시 완산구청이 주
관한 ‘2025년 8월 민방위 시범훈련’중
한 롯데마트 전주점에서도 롯데마
트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
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실생활 중심
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전주완산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방법 등을 실습 위주
로 교육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실제 대형마트는 하루 수백 명
이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직원들의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이 시
민 안전과 직결된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대형
마트,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종
사자들이 안전관리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안
전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안전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혔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시민 대상 전세사기 예방 교육 추진

지난해부터 시작 7회째
무료 법률상담소 운영

전주시가 시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 나선다.
시는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22일 평
화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지역 청년 등 시
민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
하고 안심할 수 있는 내 집 찾기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돼 7회째를 맞은 이날
교육은 평화사회복지관을 이용 중인 청
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집다운 집 찾기 △안심할 수
있는 집 찾기 △부담할 수 있는 집 찾기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교육은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

달팽이 유니온(사무처장 김가원)이 맡아
진행했다.
집주인과의 분쟁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소
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와 협력해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주거복지 종합
상담과 찾아가는 주민 교육, SNS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법률가들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무료 법률상담소에는 현재 이
진아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명)와 방소운
변호사(법률사무소 탄하)가 참여하고 있
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주거복
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협, 남원 고랭지 포도 베트남 수출

연간 약 10억원 수출 계획 주요도시 직매장 원마트 도소매 유통망서 판매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지리산농협(조합장 정대환),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이창준)과 함께 올해 생산한 남원 고랭지 포도를 베트남에 수출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선적식을 지난 22일에 가졌다.

선적식에는 남원부시장(이성호), 전라북도의원(이정린)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 약 10여명이 참석했다.

준 산간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산농협은 고랭지 기후의 영향을 받아 관내 농가에서 생산된 포도(캠벨, 사인머스켓)의 맛과 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국내 대형마트 납품으로 이미 품질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 유통·판매망을 다양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현지 유통업체인 동양농수산을 통해 수출되는 캠벨 포도 물량은 3.1톤으로 향후 연간 약 10억원의 포도(캠벨, 사인머스켓)를 수출할 계획이며 베트남 주요도시의 동양농수산 직매장인 '원마트'와 도소매 유통망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전북농협 이정환 본부장은 “농업은 국가 운명의 근간으로 농부의 마음을 이해하고 중요시하는 것이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것과 같다. 즉, 농심천심(農心天心)이다”며 “전북 포도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올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데 몰심



전북농협은 지리산농협,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올해 생산한 남원 고랭지 포도를 베트남에 수출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선적식을 지난 22일에 가졌다.

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신협,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50억원 금융지원

1인당 최대 2천만원 금리 4.0%p 신협사회공헌재단 부담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최근 기록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생계 안정을 위해 총 50억원규모 재해 복구 지원에 나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신협은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더불어사회나눔대출’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1인당 최대 2,000만 원의 긴급 생계 안정자금을 지원하며, 대출금리 4.0%p는 신협사회공헌재단이 부담한다.

신협은 저리대출 상품 운용이라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연대를 기

반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신협은 지난 4월, 경북·경남·울산지역의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전국 741개 신협과 임직원·조합원이 함께 모은 10억원 규모 성금으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도운 바 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기록적 폭우로 인명피해를 포함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신협은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피해 지역의 빠른 회복과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신협은 국가적인 재난·재해 상황에 지속적인 구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대응을 위해 △2020년 12억원 △2022년 15억원 △2023년 3억5천만원 규모 성금 및 금융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신협중앙회는 최근 기록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생계 안정을 위해 총 50억원규모 재해 복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신협중앙회 전경>

도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전북지방조달청-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업무협약

지역 기업 판로 확대 공공조달 진출 지원 강화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항수)과 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원장 배기환)은 지난 22일 김제자유무역지역 수출기업 판로확대와 공공조달 참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조달시장 진입을 돕고, 공공기관의 구매 수요와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입주기업 대상 공공조달 교육·설명회 공동 개최 △혁신·우수조달제품 판로 확대 지원 △공공조달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 보다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성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기환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입주기업의 국내 공공조달시장 진출은 수출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조달청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은지 기자

전주상의-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업무협약

기업현장 실무형 인재 공급 인력양성 교육 협력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와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학장 배규환)는 지난 22일 산업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과 대학 간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내 기업의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확대 △취업연계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정보교류 및 지원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현장 중심의 직업 교육을 선도하는 폴리텍대학과의 협력은 지역 산업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양 기관이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배규환 한국폴리텍대학전북캠퍼스 학장도 “지역기업들의 실무형 인재 공급을 위한 교육 확대를 통해 지역상공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대병원사이버공격대응 전산보안역량강화모의훈련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2025년 을지연습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에 참여해 전산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해킹메일 대응훈련 △전산망 침투 대응훈련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해 실시했다.

특히 훈련 기간 동안 사회적 이슈를 소재로 한 ‘훈련용 해킹메일’을 발송해 임직원들의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병원은 훈련 과정에서 해킹메일 수신 시 즉시 삭제 및 보안담당자 신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보안 대응 능력을 강화해 우리 병원의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강화해 어떠한 위협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농촌진흥청은 열 가공 기술을 적용한 기능성 쌀 품종 ‘도담쌀’이 혈당을 조절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도담쌀’ 혈당 조절·장 건강 개선 효과 입증

농진청, 저항전분 함량 높여 비만·당뇨 예방 가능성 확인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열 가공 기술을 적용한 기능성 쌀 품종 ‘도담쌀’이 혈당을 조절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도담쌀’은 일반 쌀보다 아밀로스 함량이 2배 이상 높고,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발효되는 저항전분을 10% 이상 함유한 국산 기능성 쌀이다.

열 가공 기술은 이러한 ‘도담쌀’의 저항전분 함량을 증대시키는 기술이다.

연구진은 동물실험에서 고지방식과 ‘도담쌀’ 사료를 8주간 함께 먹인 실험군의 공복 혈당이 고지방식만 한 실험군보다 48.3%(150mg/dL)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혈당 조절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부티르산을 만드는 유익균 수치는 약 2.8배 늘어났다.

실험군 분변 속 미생물을 분석한 결과, ‘도담쌀’ 급여군에서 저항전분을 분해하는 대표 유익균(루미노코커스 브로미, Ruminococcus bromii) 비율이 34.1%로 높았고,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낙산균도 1.6% 나타났다. 두 균주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고지방식만 급여한 실험군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장내 염증을 유발하는 유해균은 고지방 급여군에서 21.7% 비율로 높았으나, ‘도담쌀’ 급여군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 성과는 2024년 12월 국제학술지 ‘국제생물고분자학회지’(IF 8.2)에 게재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3년 열 가공 기술을 개발, 특허를 출원하고 이 기술을 적용한 ‘도담쌀’ 현미 신선이 당뇨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인체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열 가공한 ‘도담쌀’을 급여한 동물실험으로 대사 건강과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추가 확인한 것이다.

농촌진흥청 품질관리평가과 하태정 과장은 “‘도담쌀’은 혈당 조절과 장내 유익균 증진 등 대사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가진 건강 지향형 곡물로 국산 기능성 쌀의 활용 가치를 높인 대표 사례이다”며 “앞으로도 기능성 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개발과 산업과 지원을 통해 국내 기능성 쌀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8월 말까지 무더위 쭉, 농업인 온열질환 주의

체감 기온 33도 안팎 고령 농업인 주의 당부

절기상 ‘처서(23일)’가 지나도 이달 말까지 낮 기온이 30~34도 사이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한낮 노지나 비닐온실에서의 농작업을 자제하고,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 ‘폭염 특별 관측’ 자료에 따르면, 한낮 비닐온실 내부 기온은 바깥보다 평균 3도(℃) 이상, 최고 3.9도 더 높다. 또 바깥에서 농작업을 할 때도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일할 때 느끼는 기온이 서서 일할 때보다 평균 1.8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고령 농업인은 이러한 고온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다.

특히 폭염이 얼마나 위험한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가족이나 이웃이 정기적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작업 전후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더운 시간대(오전 11시~오후 5시)에는 농작업을 자제하고 해 뜨기 전이나 해 질 무렵 작업에 임한다. 비닐하우스 작업 시에는 반드시 환기창을 열고, 차광막으로 그늘을 만들어 작업자가 햇볕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한다.

또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작업 중 15~20분마다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도록 한다. 이때 너무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김은지 기자



전주대, 자유전공학부 정원 확대

176명→196명 증원 선발 사범대자율전공학부 신설 학생 전공 선택권 강화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자유전공학부의 정원을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주대는 2025학년도에 자유전공학부를 새롭게 신설해 176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

분 대학이 1년간 전공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전주대는 1학기 동안 집중적인 전공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1학년 2학기부터 희망학과에 배정돼 학생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주대는 자유전공학부 신입생들의 원활한 대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RC(Residential College)교육을 도입했다.

1학기 동안 신입생들은 사제동행 지도교수, 선배학습멘토, RC지원교수, 진로지도사로 구성된 RC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리더십 캠프, 체육대

회, 캠퍼스피크닉, 지역사회 플로깅, 기업탐방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학생 활에 적응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체계적인 RC교육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감과 소속감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됐고, 자유전공학부 신입생의 100%가 본인이 선택한 학과에 배정됐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026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에서 자유전공학부 정원을 기존 176명에서 196명으로 20명 증원하고, 사범대학에도 '사범대자율전

공학부'를 신설하는 등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분야를 경험하고,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맞춘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써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이다.

전주대 이근호 입학처장은 "전주대학교는 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존중하고, 창의적 사고와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 학생 중심의 새로운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과학교육원입찰비리 의혹, 경찰 ‘수사중지’

단서부족명단유출혐의 없어

최근 전북과학교육원의 전시체험관 설치사업 과정의 심사위원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지난 2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결과,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수사 단서가 부족해 피의자 특정하지 못했고, 과학교육원 내부에서 평가위원 명단이 유출됐다고 볼 만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업체

선정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평가위원 무작위 전자 추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외부 전문가가 참여 확대 등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과학교육원은 지난 5월 전시체험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넘겨주는 대가로 금전거래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접수되면서 시작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후기 학위수여식 1,572명 졸업생 새 출발

박사 177명·석사 434명

학사 961명 등 졸업생 배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지난 22일 오전 10시 삼성문화회관에서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열고, 1,572명의 졸업생을 사회로 배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본부 보직자와 학부위원, 역대 총장단, 최병선 총동창회장, 졸업생과 학부모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학위는 박사 177명, 석사 434명, 학사 961명에게 각각 수여됐다.

또한 원태연 학생(공과대학) 등 89명

이 우수졸업생으로, 박시아 학생(인문대학) 등 17명이 핵심인재상 수상자로, 뼈덕 이쉬려 학생(박사과정) 50명이 우수연구 학생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양오봉 총장은 이날 졸업식사 서두에 스페인 통치에 맞서 항쟁을 이끈 페루의 호세 가브리엘 콘도르칸키를 기억하며 구전되던 노래인 ‘엘 콘도르 파사’를 들려주며 “위대한 영웅들이 콘도르로 다시 태어나 창공을 날아오르듯, 오늘 졸업생 여러분의 비상도 이곳 건지벌에서 시작되길 바란다”고 축하 인사

를 전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학교가 지난 22일 오전 10시 삼성문화회관에서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열고, 1,572명의 졸업생을 사회로 배출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전북 MICE 서포터즈, ‘코리아 영마이스 앰배서더 총회’ 솟품 챌린지 대상

마이스, 대표 관광자원 담은 콘텐츠로 전국에 매력 알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재단 소속 전북 MICE(이하 마이스) 서포터즈 ‘마이스어스’가 ‘2025 코리아 영마이스 앰배서더 총회’에 참가해 솟품 챌린지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전국 마이스 서포터즈와 대학 동아리 약 200여 명이 참가한 전국 단위 청년 마이스 교류 행사이며,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사)한국MICE협회 주최로 지난 20일에 개최돼 사흘 동안 진행된

다. 재단은 전북의 마이스 산업 역량과 대표 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리고, 전국 청년

마이스 인재들과의 교류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참가했다.

총회 기간 동안, 재단 마이스 서포터즈 ‘마이스어스’는 전북의 대표 관광자원과 마이스 인프라를 담은 솟품 콘텐츠를 제작해 전국 청년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대상을 거머쥐었다. 재단은 이번 수상이 전북 마이스 산업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마이스 관련 특강과 네트워킹 세션에 참여했다. 또한 업계 선배와의 워크숍, 경주 유니크 메뉴 투어 등을 통해 청년 마이스 인재로서의 성장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이경윤 대표이사는 “마이스어스가 전국 무대에서 전북의 매력을 알리고 대상을 수상한 것은 매우 의



미있는 성과다”며 “앞으로도 청년 인재 육성과 지역 기반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이스’는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포상관광), Convention(국제

회의), Exhibition(전시회)&Event(이벤트)를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복합 산업으로,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장정철 기자

군산대 이지원 학생, 인공지능 활용 정신질환 연구 발표

정신질환 객관적 진단·치료법 개발 기초연구로 평가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22일 정보통신전공공학전공 이지원 석사과정 학생(지도교수: 인공지능융합학과 조한규)이 독일 아헨공과대학교(RWTH Aachen University)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신질환 연구 성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을 정신의학 분야에 접목해 정신질환의 객관적 진단과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이지원 학생을 포함한 연구팀은 그래프뉴럴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우울증과 조현병 환자 뇌의 복잡한 네트워크

연결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각 정신질환에 특화된 뇌 네트워크 패턴과 특징을 정량적으로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논문은 국제학술지 Depression and Anxiety에 게재될 예정이다.

해당 저널은 정신의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로 논문 채택률이 16%에 불과하며, 이번 논문은 이지원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하고 독일 연구진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된 성과다.

국립군산대 이지원 학생은 “다양한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며 “좋은 기회를 얻게 된 데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인공지능융합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지역상인 12곳과 함께하는 ESG 실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ESG 실천에 지역상인들이 동참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2일 본청 5층 회의실에서 ‘지역상인과 함께하는 ESG 실천가게 헌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ESG 실천가게는 매장 내 1회용품 감량을 적극 실천하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며 △지역 농산물 이용 △지역사회 공헌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을 통해 소비자가 함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실천하는 곳이다.

이번에 ESG 실천가게에 동참하는 곳은 도교육청 인근 카페 및 음식점 12곳으로, 이들은 지역사회의 친환경 소비문화와 사회적 책임 실천 문화 확산에 힘

을 보탠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5월 까지 ESG 실천가게 모집을 위해 인근 상가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왔고, 그 결과 12곳이 전북교육 ESG 실천에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

ESG 실천가게의 주요 실천 영역을 살펴보면 카페는 텀블러 지참 시 가격 할인과 생분해 빨대(컵) 사용 등을 실천하고 있으며, 음식점은 배달 시 다용도기 사용과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를 실천하고 있었다.

전북교육청은 선정된 ESG 실천가게를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점차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성민 기자

함께 실천 해요! 환경보호!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한 지금, 우리 각자가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지구를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읍시, 9월 9일까지 시민대학 교육생 20명 선착순 모집

정읍시가 사회적경제와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5 정읍시민대학’ 교육생 모집에 나섰다.

이번 시민대학은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청춘활력소 3층(정읍시 연지3길 189-4)에서 총 7회차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경제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창업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세부 교육 내용은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입문 절차 △소셜벤처 사업계획 수립 △협동조합의 이해 △사회적경제 인문학 △사회적기업 비즈니스모델 등으로 마련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창업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사회경제제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9일까지로, 정읍시청 고시·공고와 정읍시지역활력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민대학은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모델 발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문화예술 접목 체험형 ‘청렴라이브 교육’ 호응

군산시가 지난 22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시청 직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라이브(Live) 교육’을 개최했다.

‘청렴라이브’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인 이론 전달 강의를 벗어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한 공연형식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열린 교육은 청렴 판소리 공연을 시작으로 △청렴 특강 △샌드아트 공연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마지막 순서로는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 효과를 점검하며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직원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청렴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청렴을 조직문화의 중심에 두고, 시민의 신뢰를 받는 투명한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청렴라이브가 공직자의 책무와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청렴도 3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을 생활화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일자리창출위원회 올해 성과 점검·신규 시책 논의

정읍시는 지난 21일 제2회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열고 올해 일자리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신규 시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사업은 노인, 청년, 장애인, 여성 등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11개 부서에서 18개 과제를 운영 중이다.

총사업비는 약 500억원으로, 일자리 창출 목표는 1만 858개다. 상반기까지 9799개 일자리를 만들어 목표의 90%를 달성했고, 연말에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6년에 추진할 신규 시책으로 △신종년 제도약을 위한 기업체 고용장려금 지원 △신종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쉼터 조성 등 3건이 상정됐다. 위원들은 세부 추진 방안을 검토하며 보완점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정읍시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바이오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첨단산업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추가 조성, 바이오지식산업센터 구축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 도심 속 힐링 명소 치유의숲 착공

도비 포함 총 60억원 투입 7.24ha 규모 공간 조성 2026년 완공 목표

정읍시가 시가동 일원에 약 7.24ha 규모의 치유의 숲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60억원(도비 25억원, 시비 25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원)이 투입되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치유의 숲은 산림자원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돕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시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거쳤으며, 올해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치유의 숲에는 치유센터를 비롯해 치유숲길, 풍욕장 등 다양한 테마공간이 들어선다. 치유센터는 방문객에게 산림치유프로그램 안내와 체험 기회를 제



정읍시가 시가동 일원에 약 7.24ha 규모의 치유의 숲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위지도>

공하고, 치유숲길에서는 피톤치드를 느끼며 산책을 즐길 수 있다. 풍욕장은 바람을 맞으며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시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산림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생

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학수 시장은 “치유의 숲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키고 활력을 되찾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누구나 편안히 찾을 수 있는 산림 치유공간을 마련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주)마더스제약, 익산에 286억 원 증설 투자

2027년까지 제3일반산단 내 투자55명 신규인력 채용도

익산시가 미래 성장산업 기반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22일 전북특별자치도, ㈜마더스제약과 함께 제3일반산업단지 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마더스제약은 제3일반산단 3만 8,361㎡ 부지 내 생산공산 증설에 오는 2027년까지 총 286억 원

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55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 지역 고용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마더스제약은 2020년 제3일반산단에 익산공장 가동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380억 원을 투자하고 116명을 고용해 온 유망 제약기업이다. 이번 증설이 완료되면 지역 내 총 근무 인원은 약 17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설립된 ㈜마더스제약은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성장해 왔으며 레이본정(골관절증), 스토엠정(위

염), 케라시탈캡슐(탈모) 등 완제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속적인 매출 증가와 국내외 시장 확대, 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시설 확장의 필요성이 커져 이번 대규모 투자로 이어졌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우리시에 증설 투자를 결정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마더스제약과 같은 우량기업의 투자유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형 마을전자상거래’, 올해 매출 27억원 돌파

소농고령농 재배 농산물 전국 유통 ‘산지 직송’ 실현

농민은 땅을 일구고, 행정이 판로를 여는 익산형 유통망이 고령농·소농·영세농을 든든하게 돕는 ‘장사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익산시는 ‘익산형 마을전자상거래’가 올해 8월 기준 누적 매출 27억 원을 돌파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마을전자상거래’는 농민이 직접 재배한 신선한 농산물을 익산시가 온라인 쇼룸과 연계해 판매하는 사업이다. 자체 운영하는 익산몰은 물론 네이버, 옥션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익산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익산 시내권 소비자라면 아침 6시까지 주문한 건에 대해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 아침에 주문한 채소가 저녁 식탁에 오르는, 말 그대로 ‘산지 직송’을 실현한 것이다. 신선도는 물론 편리함까지 갖춘 서비스다.

익산시는 수거 동선을 최적화한 물류 시스템도 함께 구축해 농가는 물류 부담 없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했다. 농민은 농사에, 시는 판매와 홍보에 나서며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익산시가’라는 슬로건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시는 안정적인 판매량에 힘입어 남은

하반기에도 더욱 공격적으로 농촌경제를 견인할 계획이다.

신뢰도 높은 유통을 위해 소비자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잔류농약 검사, 품질관리 등도 병행된다. 이러한 성과는 대외적으로도 인정 받고있다. 시는 ‘2025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익산시가’ 모델을 앞세운 전국적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마을전자상거래는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라며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29일 군산서 막 올려

새만금자동차경기장서 개최 29개 대학35개 팀 참가

군산새만금자동차경기장에서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2025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가 개최된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작차 순수기술을 겨루는 최대 행사이다. 올해는 전국 29개 대학, 35개 팀이 참가해 직접 설계·제작한 차량으로 Baja 부문과 기술 부문으로 나누어 주행 성능과 기술 역량을 겨룬다.

먼저 ‘Baja’ 부문의 경우 다양한 조건의 실전 경주장에서 예선전과 패자부활전을 거쳐 우열을 가린다. 기술 부문에서는 차량의 창의성·설계 능력·디자인 완성도를 심사·평가한다.

특히, 8월 31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오프로드 경기인 ‘Baja’는 매년 높은 관심을 받는 종목으로 실제 그라프리카 경주를 방불케 하는 박진감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는 무료관람으로 진행되며, 남녀

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 자동차 업체 홍보와 10월에 열리는 군산시 대표 축제인 ‘군산시간여행축제’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온 가족 함께 하는 ‘숲속 책 한마당’

늘푸른도서관, 내달 5일부터 문화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 늘푸른도서관이 9월 5일부터 ‘숲속 책 한마당’ 문화행사를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가족이 숲에서 책과 캠핑을 함께 즐기는 가족 북캠핑 △바라보는 별을 바라보는 천문 프로그램 등이다.

가족 북캠핑은 9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며,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도서관 대출 후 북캠핑 꾸러미를 대여해 물사랑공원에서 이용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9월 8일부터 매주 월~금 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또 다른 행사인 ‘천문 프로그램’에서는 태양계 이야기를 듣고 만들기·천체관측 등이 진행되며 9월 5일에 열린다.

이어 13일에는 ‘풍선버블공연’, ‘초상화 캐리커처’ 및 ‘봉숭아 통통통 그림책을 읽고 가족과 함께 봉



숭아 꽃밭을 만들어보는 ‘문명에 작가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천문 프로그램과 공연, 작가와의 만남 행사 참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온 가족이 도서관에서 혹은 숲속에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행복한 경험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천~정읍역 연계 활성화 ‘벽천분수’ 조성

10월 본격 공사 착수

정읍시가 정읍천~정읍역 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벽천분수 조성에 나서며 지난 20일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벽천분수는 지난해 조성된 미로분수와 연계해 추진하는 도심 수변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정읍천 제방에 설치되는 물테마시설이다. 조성될 벽천분수는 길이 61m, 폭 13.9m, 높이 5.3m 규모로 26개의 점핑분수, 캐스케이드, 30개의 캔들 분수로 구성된다. 음악과 연동된 다양한 분수 연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지반조사와 수리 검토, 안전성 검토도 마쳤다.

시는 9월 중 전북자치도의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해 2026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벽천분수를 미로분수와 연계한 물테마시설로 조성해 정읍천을 공연·체험·휴식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도심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통합형 노인인력개발교육원 건립 발품 행정

익산시가 통합형 노인인력개발교육원 건립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22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 방문해 김미곤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출장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이 참석해 통합형 노인인력개발교육원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도록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향후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확대, 여가·복지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아직까지 전국 단위 관련 교육원이 없는 상황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모든 시민 혜택 받길” 소비쿠폰 지급 ‘최선’

지급률 98%·9월 12일 신청마감

익산시가 막바지에 접어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98%를 기록했다며, 남은 기간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에 끝까지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기준 약 26만 130명이 소비쿠폰을 발급받았으며, 이 중 집계 가능한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액은 발급액의 78%인 280억 원에 달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시는 1차 신청이 오는 9월 12일 마감되는 만큼 쿠폰을 받지 못한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을 더욱 강화한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접수부터 쿠폰 지급까지 통합 지원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처음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진한 덕분에 초기에 높은 지급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남은 기간 한 명의 시민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쿠폰 100%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 ‘수광쌀’ 해외진출 첫 발

친환경쌀, 미국·몽골에 1톤 수출 하반기 일반미 20톤 추가수출 계획

고창군이 지난 22일 신활력산업단지 친환경쌀가공센터에서 고창 친환경 ‘수광쌀’의 첫 해외 수출 선적식을 열고, 미국 LA와 몽골 울란바토르에 초도 물량 1톤을 수출한다.

이번 물량은 현지 마케팅 행사에 활용될 예정으로, 고창산 친환경쌀이 해외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의미를 가진다.

수출되는 ‘수광쌀’은 고창군 농가들이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제초제 대신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해 생산한 고품질 쌀이다.

‘수광벼’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밥쌀용 최고품질 품종으로, 아밀로스와 단백질 함유량이 낮아 찰기가 뛰어나고 밥맛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이 쌀은 안전성과 맛을 동시에 인정받으며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고창군은 이번 친환경 수광쌀 1톤 수



고창군이 고창 친환경 ‘수광쌀’의 첫 해외 수출 선적식을 열고, 미국 LA와 몽골 울란바토르에 초도 물량 1톤을 수출한다. <사진=고창군>

출을 시작으로 하반기 일반미 20톤 추가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수출 물량 확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실적 달성에 탄력을 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해외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대 한결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이번 수출을 기점으로 미국뿐 아니라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친환경쌀 수출을 확대하겠다”며 “수출이 늘어나는 만큼 농가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쌀 수출 확대는 해외시장 개척뿐만 아니라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실적 달성에도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벼 재배농가가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친환경 재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제 4호 골목형 상점가, ‘도작9길 일원’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지역 상권 활력 기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역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일 신풍동 도작9길 일원을 ‘김제 제4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 가능해져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번에 지정된 신풍동 골목형 상점가는 산림조합 인근 요촌동 629번지에서 신풍동 585-4번지 일원까지이며, 음식점·미용실·병의원 등 41개 점포가 포함돼 있다.

이번 지정으로 김제시 내 상점가는



기존 동서로, 사자탑, 금구리 골목형 상점가를 포함해 총 4곳으로 확대됐다.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기본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환급행사를 활용하면 최대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 시 사용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이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무더위 날린 ‘제29회 고창해풍고추축제’ 성료

심덕섭 군수 등 5백여명 개막식 참여 직거래 판매도

고창군에서 전국 최고 품질의 고창해풍고추를 소재로 한 ‘제29회 고창해풍고추축제’가 지난 23일 고창군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지난 23일 오후 5시 축제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개막식은 심덕섭 고창군수와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윤준병 국회의원 등 지역주민 50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관내 청소년 댄스팀의 식전공연으로 시작했다.

또한, 14개 읍면이 하나되는 마음으로 대형 떡 케이크 커팅식 및 나눔 퍼포먼스가 진행돼 축제장을 방문한 모든 관광객들과 나눴다.

“자연이 키운 매운맛, 고창해풍고추!”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에는 고창군 고추 재배 농가와 소비자간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고추 할인 쿠폰 행사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고추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또한, 고추를 소재로 한 김치 만들기 체험 등 체험행사와 함께 먹거리 장터, 버스킹 공연 등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고창 해풍고추는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고창 황토에서 깨끗하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병해충에 강하고 표피가 두꺼우며 특유의 매콤한 맛과 향을 지니고 있어 예로부터 김장김치에 사용하는 최고의 고추로 명성이 자자한 고추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올해에는 특히 더운 날씨로 인해 좋은 농산물을 길러 내시느라 고생하신 농민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그간의 피로와 한여름의 무더위를 이번 축제를 통해 모두 털어버리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구진마을 파크골프장 올해 말 완공

쉼터 시설 그대로 유지 지역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부안군은 지난 2024년 8월 도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같은해 12월 착공한 진서면 구진마을 파크골프장(9홀)을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파크골프장은 1차분을 지난 5월

완료하고 잔여 사업비를 이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해 지역주민 및 탐방객들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파크골프장은 구진쉼터 나대지를 활용해 조성되며 기존 구진쉼터 총사업비 10억원의 시설물은 정자 3개소, 공중화장실, 주차장, 화장 등 모든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한다.

다만 지역주민 및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파

크골프장운영 차원에서 코스 길이와 폭원 확장 요청으로 나대지의 중앙부 산책로 투수블럭 철거와 조경수 24주를 이식해 재활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23년 10월 말 출판마 해안탐방도로 준공 시 나대지는 파크골프장 예정부지로서 올해 말 파크골프장 완공 시 지역주민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 자원순환 세로보미 축제’ 준비 막바지

9월 5~6일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2일 환경부가 주최하는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한 ‘제3회 김제 자원순환 세로보미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부스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준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축제장에서 각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들에게 축제장 행동요령,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이 안내됐으며,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절차를 공유하고, 방문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각자 맡은 바를 철저히 준비해 김제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회 김제 자원순환 세로보미 축제는 9월 5일~6일, 김제시 민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다양한 자원순환 체험·전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중요한 환경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구)공항부지 관리 시행 주민 민원 해소

폐측사·폐가옥 등 연차별 철거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3월부터 백산면 조종리, 공덕면 공덕리 일원 구)김제공항부지에 대해 농로 및 비포장도로 사리부설,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CCTV설치, 차량통행로 별목작업을 시행하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공항건설계획 취소돼 20여년 간 방치된 구)김제공항부지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인근 지역주민에게 경작용으로 대부해 관리하고 있었으나 재산관리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이 인전에 소재하고 있어 경작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가축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악취 등 다양한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구)김제공항부지 활용방안으로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을 구상하고 서울지방항공청과 지난 2024년 11월 공항부지 매입 및 관리에 대한 MOU를 체결, 올 2월부터 시 성장전략실에서 관리위탁 중에 있다.

시는 공항사업 추진 당시 보상이 완료된 폐측사, 폐가옥, 지장물을 연차별로 철거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유재산 대부료로 충당한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은 “이번 공항부지 정비로 지역 주민의 애로 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생활 및 영농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항부지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13개 읍·면 이장 한자리에…소통문화 확산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22일 K컨벤션웨딩홀에서 관내 13개 읍·면 이장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부안군 이장단 리더십 소통강화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지역 리더로서 이장들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에서는 김지영 전북인권교육원 구소장이 ‘인권침해로부터 나와 우리 지키려면’을 주제로 상호 존중과 인권 감수성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으며, 홍미선 교육미술연구센터장은 미술과 심리학을 접목한 ‘놀라운 미술 심리학, 미술로 리더가 된다!’를 통해 효과적인 소통법과 창의적 리더십 전략을 흥미롭게 전달했다.

이날 권익현 부안군수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이장님들은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마을 공동체를 이끄는 핵심 리더”라며 “부안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계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장학재단, 대학생 애향심 고취캠프

(재)고창군장학재단이 지난 21~22일 고창군 일원에서 고창 출신 대학생 40여명을 초청해 ‘대학생 애향심 고취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가 학생들은 고창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체험하며 고창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고창 바로알기’ 강의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고창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했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은 “이번 캠프를

통해 고창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고창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심덕섭 이사장은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많은데 시간을 내어 방학 중임에도 고창을 찾아준 대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이번 캠프의 기억이 여러분의 꿈을 키워가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학습스터디클럽’ 첫교육 평생교육실무관계자 전문성강화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2일 2025년 교육부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평생교육 실무관계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습스터디클럽’ 첫교육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 교육은 현장중심 실무교육으로 차별화하기 위해 원광대학교 평생능력개발원 최은미 부원장과 함께 ‘성장하는 로컬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집중진흥지구 비전수립을 주제로 강연하고 2차시로는 평생학습공작소 한성근 대표가 ‘바보야, 문제는 학습이야!’라는 도발적 제목으로 지역소멸위기와 고령화, 장애인 평생교육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교육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학습을 통한 지역성장을 위해 9월에는 진주시와 익산시에서 우수시군 사례분석과 눈에 띄는 사업아이템 발굴방안, 근거리 학습망 구축과 마을배움터 성장전략 등 지역특화 평생교육 모델 개발을 목표로 진행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멀티형 학습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창의적 학습전략이 절실하다”며 “이번 스터디클럽을 통해 로컬학습시대를 선도하는 전북의 특화학습모델이 발굴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부모·아동 등 60명 대상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고창군이 지난 22일 글마루작은도서관에서 부모, 아동, 아동 관련 종사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광주대학교 아동학과 최아라 교수를 강사로 초빙했으며 긍정양육129 원칙에 따른 올바른 양육 태도와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부모-자녀 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긍정양육 129원칙이란, (1)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이고 (2)가치 실현 원리는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 서로에 대한 믿음이다. (9)가치 실현 방법은 자녀 알기, 나 돌아보기, 관점 바꾸기, 같이 성장하기, 온전히 집중하기 등이 있다.

유정현 인재양성과장은 “부모의 격려 한마디, 공감 어린 눈빛 하나가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우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될 것이다”며 “고창군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유관기관합동다중이용시설 대테러대응실제훈련 실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21일 부안실내체육관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 및 화재진압 대테러대응 실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탄테러 및 연쇄 화재 상황을 가상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부안군을 비롯해 부안경찰서, 부안소방서, 제8098부대 1대대 등 80여 명의 관련 기관 인력이 참여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훈련은 폭발물 발견 및 제거, 화재 진압 등 주요 대응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각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신속한 현장 대응 실습에 중점을 뒀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대테러 및 화재진압 합동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재난 대비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남원시, 道 특화 ‘블루존 프로젝트’ 선정

용정동 2036억 규모 사업 대상지 고령 친화형 정주환경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가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고령자 건강 치유마을 ‘블루존 프로젝트’ 사업 대상지로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최종 선정됐다.

남원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업 유치를 위해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시하며 전북도와 협의해 왔다. ‘블루존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2,036억 원 규모로, 고령 친화형 정주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전북도의 특화사업이다.

‘블루존(Blue Zone)’은 세계적으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를 착안해 고령 친화형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고령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대상지는 남원시 용정동 일원으



전북도 특화사업 ‘고령자 건강 치유마을 블루존 프로젝트’ 대상지로 남원시가 최종 선정됐다. <사진=남원시>

로, 교통산 자락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교통망(KTX·달빛 철도 정차역인 남원역, 고속도로 나들목, 전주-남원 간 17번 국도 등), 주요 의료기관 및 시내 중심권과의 인접성 등이 장점으로 평가됐다.

남원시는 이를 기반으로 주거·의료·여가·돌봄이 통합된 ‘남원형 건강 치유정주 모델’을 구현한다.

복합형 건강 치유마을은 실버타운,

여가시설, 건강지원시설 등을 포함해 고령자 맞춤형 정주환경을 제시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는 앞으로 전북도와 협력해 국가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고령자복지주택과 치매전담시설, 국민체육센터 등 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베트남 호치민市 경제사절단, 내달 남원 방문

MOU 체결로 교류·협력 확대 바이오·부티기업 수출 상담 진행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베트남 호치민시 응우옌 반 중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이 오는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남원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호치민시 경제사절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며 그 외에 호치민시 관계 공무원, 베트남 한인상공인연합회 김년호 회장과 관계자, 바이어 20명 등 총 3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방문단이다.

이번 경제사절단 방문은 최근 베트남도 립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으로 그동안 가졌던 일부 제조업에 한정된 협력

범위가 다양한 범위로 확대되는 한-베트남 경제협력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이재명정부의 외교기조와 맞물려 그 성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남원시는 최근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주관 해외수출지원사업을 통해 호치민에서 열린 ‘2025 코스모뷰티 베트남 박람회’에 지역 기업 3곳이 참가해 MOU와 LOI 8건을 체결하고 약 260만 달러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기간 연구원은 베트남 한인상공인연합회와 우호교류협약을 맺었으며, 그 후속으로 경제사절단이 남원을 방문하게 됐다.

사절단은 첫날 남원시와 교류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업·문화 분야 협

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둘째 날에는 노암산업단지 바이오 특화단지와 지역 기업을 방문하고, 베트남 바이어 20명과 남원 바이오·부티기업 간 수출 상담이 진행된다.

최근 세계 부티시장은 동남아와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K-뷰티 선호도가 높아 이번 경제사절단의 남원 방문이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세계 부티시장 성장에 맞춰 중앙부처 국비 지원을 확보하고 지역 기업 해외수출을 지원해 향후 3년간 수출 1,000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외국 소프트테니스 선수단 ‘순창투어’ 진행

일본 소프트테니스 선수단 대상 스포츠마케팅 관광 연계 본격화

순창군이 외국인 소프트테니스 선수단을 대상으로 한 지역 홍보에 본격 나섰다.

군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개최된 제5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초등학교 소프트테니스 대회에 참가한 일본 쿠라시키 선수단을 초청해 순창의 주요 명소를 탐방하는 ‘순창투어’를 진행했다.

투어는 21일 진행됐으며, 지도자와 초등부 선수, 학부모 등 총 23명이 참여했다. 선수단은 먼저 강천산군립공원을 찾아 울창한 숲과 계곡을 거닐며 순창의 청정 자연을 체험했다.

이어 고추장 민속마을 장류 체험관을 방문해 순창의 전통 발효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한국 음식문화의 깊이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순창군은 지난 16~21일 문체부장관기 전국 소프트테니스 초등부대회에 참가한 일본 쿠라시키 선수단을 초청해 21일 ‘순창투어’를 진행했다. <사진=순창군>

아울러 군은 이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외국인 소프트테니스 선수단을 대상으로 강천산과 장류체험관 등 주요 관광자원은 물론,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순창의 매력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스포츠를 통한 국제 우호 교류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이번 투어에 참가한 한 일본 쿠라시키 선수단 관계자는 “장류체험이 인상 깊었고, 선수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영일 군수는 “앞으로도 해외 선수단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순창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의회, 전북도청서 통합 반대 캠페인

완주자치권수호발전역량강조 임시회준비로 캠페인 자체 결정

완주군의회(의장 유익식)는 지난 22일 전라북도청 앞에서 ‘완주·전주 통합 반대’ 캠페인을 열고, 군민과 함께 완주의 자치와 미래를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일 전주시청에서 열린 통합 반대 캠페인에 이어, 이날 행사에도 유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11명 전원과 통합 반대 단체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

해 완주의 자치와 미래를 수호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도청을 찾은 도민들과 직접 만나 통합 추진의 부당성을 알리고, 완주군이 독자적으로 발전할 충분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유익식 의장은 현장에서 “통합은 더 큰 발전이 아니라 불균형만 조래할 뿐”이라며, “군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 통합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군의

원들은 “완주군은 수소경제 1번지이자 문화와 농업이 어우러진 미래도시”라며, “전주와의 통합이 아니라 완주 고유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독자적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을 지나던 도민들도 “완주의 뜻을 대변해주니 힘이 된다”며 응원의 뜻을 전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오는 9월 3일 개최예정인 제295회 임시회 준비에 집중할 계획으로 당분간 외부 통합반대 캠페인은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동편제국악 거리축제 내달 13일 개막

황산대첩비지·정자마루 일대 송가인·안숙선 등 공연

전통의 깊이와 현대의 감각이 어우러지는 무대, 제11회 동편제 국악 거리축제가 오는 9월 13일 남원 황산대첩비지와 정자마루 일대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

이번 축제는 동편제 판소리의 맥을 이어으며 국악의 현재를 조망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뜻깊은 무대가 될 전망이다.

지리산의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1부 정자마루 콘서트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진다. 이번 무대에는 원나경, 장서윤, 변상엽, 이민형, 소리

꽃가객단, 정은혜, 김인수 등이 출연해 맑고 깊은 국악의 울림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국악의 매력을 고스란히 전달할 예정이다.

황산대첩비지를 수놓을 2부 소리열전 슈퍼콘서트는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국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대규모 무대가 마련된다. 동편제 국악의 상징인 안숙선 명창을 비롯해, 대중성과 전통성을 함께 갖춘 송가인, 창의적인 무대로 주목받는 우리소리 바라지, 그리고 깊이 있는 소리를 전하는 채수정, 박근영이 함께해 국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지역 IT 공동체와 피지컬AI교육 도입 간담회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임성희)가 최근 지역 IT 교육공동체와 함께 ‘피지컬 AI(Physical AI) 교육’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미래 교육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드림에듀(대표 서영길) △메이커팩토리(대표 조국) △완주군 코딩교 공동체(대표 윤기봉) 등 마을교육과정 기관이 참여해 완주형 피지컬 AI 교육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피지컬 AI 교육 콘텐츠 개발 △센서·로봇·메이커 장비를 활용한 학교-마을 연계 수업 모델 구성 △체험·제작·동작 중심의 학습 프로그램 설계 △교사·학부모 대상 AI 매개자 양성과정 연계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각 공동체는 드림에듀의 메타버스(ZEP)·피지컬 발랑코딩, 메이커팩토리의 무한확장로봇 핑퐁, 코딩교 공동체의 언플러그드 코딩 및 로봇과학 등 전문 역량을 공유하며,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피지컬 AI 교육 모델을 공동 설계해 나가기로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지역 IT 공동체와 협력해 학생들이 피지컬 AI 기반 프로젝트 학습을 경험하고 미래 사회를 주도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지난 21일 배지연 전주고용센터 소장·심재광 우석대 일자리본부장 등 10여명과 ‘완주 취업반’ 출범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완주군의회>

완주산단, ‘취업반’으로 청년 정주 지원 방안 모색

인력난 해소 맞춤형 운영 추진 기업·청년 미스매치 해소 목표

완주군 산업단지 인력난 해소와 청년 정주 지원을 위한 ‘완주 취업반’ 운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21일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배지연 소장,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심재광 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산업 수요와 청년 일자리 정책을 연계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주요 산업군(자동차·화학·반도체·수소·이차전지 등)의 전문인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취업반 운영 △출입예정자 및 지역 청년 대상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 △취업-결혼-정주를 연계한 지역 선순환 구조 마련 등이다.

특히 ‘완주 취업반’은 기업과 청년 간 미스매치를 줄이고, 지역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업 실무진 특강, 채용설명회, 기업탐방, 실전 면접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추진될 예정이다.

앞으로 세 기관은 정례적 간담회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취업역량 강화 교육 △기업탐방 △채용면접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완주 취업반’의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재천 부의장은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추진

농가신청 후평가 거쳐 최종 지정 지정 농가 인센티브 혜택 제공

순창군은 축산악취 저감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사육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하며,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인증 제도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축산농가는 축산악취관리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축산업 허가증, 자가진단표 등)를 첨부하

면 된다.

지정 기준은 축종별 평가표에서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후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평가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검토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 농가에는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각종 축산 보조사업 가산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순창군에는 76농가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됐으며, 군은 올해 15농가 추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지정 농가에는 매년 1회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정 후 5년이 지난 농가는 재평가와 환경개선교육 이수 등 사후 관리도 병행한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9월부터 매주 체납 차량 집중 단속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순창군은 오는 9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주차장과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적발될 경

우 번호판이 즉시 영치된다.

군은 단속 전 체납자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즉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인도 명령, 강제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산내면서 세계적 희귀종 ‘맹구알버섯’ 12년 연속 발견

세계적 희귀종인 ‘맹구알버섯’이 남원시 산내면에서 12년 연속 발견되었다.

14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시 산내면 임석마을 주지환(62) 임석이장은 자신의 사과농장에서 맹구알버섯 1개를 발견했다.

임석마을 주지환 이장은 2014년 처음으로 맹구알버섯을 발견했으며, 올해로 12년 연속으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총 7개의 맹구알버섯이 발견됐으며 가장 큰 버섯은 볼링공 크기만 하다.

유기농 24년차 이장님의 노력속에서 결실이 피었다. 복분자도 친환경으로 재배중이다.

‘맹구알버섯’은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유 기질이 많은 대나무 숲속, 들날, 풀밭, 잡목림에서 발생하며, 지혈과 해독, 남성 성 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터넷 등을 통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9년 계룡산에서 처음 발견된 기록이 있으며, 전주, 담양 등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으나, 이처럼 해마다 꾸준히 발견된 경우는 흔치 않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보건소, 최대 1개월 월처여 무료 대여 제공

완주군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이동 편의를 위해 ‘보건소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의 일환으로, 사고나 질병으로 일시적으로 보행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보행장애가 있거나 부상으로 보조기가 필요한 주민으로, 1인당 1대씩 대여할 수 있다.

대여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사전 전화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은 최대 1개월까지 무료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 사업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고창군 성송면 정석환 씨,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고창군 성송면 사내마을 정석환씨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성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에 사용되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 및 다양한 복지사업에 소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정석환씨는 지역 봉사단체 회원으로서 성송면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이번 성금 기탁은 그의 변함없는 봉사정신과 깊은 지역 사랑이 담긴 뜻깊은 실천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 에은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에 시원한 오이냉국 나눔

완주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에은노인복지센터(원장 정태원)는 최근 무더위로 입맛을 잃기 쉬운 돌봄 대상 어르신들을 위해 '오이냉국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일 이어지는 열대야와 폭염 속에서 어르신들의 기력 저하를 예방하고, 여름철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마련됐다. 수행 인력들은 신선한 오이와 천연 재료를 직접 손질해 정성껏 조리했으며, 어르신 맥을 찾아 일일이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완주=김명곤 기자

진안 백운면 주민자치위원회, 면내 도로변 환경정화활동

진안군 백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면 직원들은 지난 21일 면 소재지 일대와 내동숲에서 대대적인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이날 활동에는 주민자치위원과 면사무소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면 소재지 주변 도로변에 버려진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내동숲 산책로 일대를 돌며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는 등 환경 정비에 나섰다.

/진안=전길빈 기자

전북지구 청년회의소·김제청년회의소, 500만원 기부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2일 전북지구 청년회의소와 김제청년회의소가 아이돌봄센터 운영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지구 청년회의소 김정환 회장 300만원, 김제청년회의소 최문수 회장이 200만원을 기탁했다.

전북지구 청년회의소 김정환 회장은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

돌봄센터 운영이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며 “고향 사랑기부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김제청년회의소 최문수 회장은 “김제시에서 관계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제청년회의소 회원들의 마음을 모았다”며 “김제 아이돌봄센터 운영이 시작된다면 어린 자녀를 둔 청년 부모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 기부가 더 뿌듯하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박진수 주성씨앤에어(주), 부안 어르신들에 에어컨 9대 기탁

약 700만원 상당 기부

부안군 줄포면은 지난 21일 물류업체 주성씨앤에어(주)가 독거 어르신 및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해 약 7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9대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탁된 에어컨은 독거어르신 및 취약계층에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주성씨앤에어(주)는 해상, 항공 수

출입에 대한 복합 운송 주선업을 하는 기업으로 지난 2024년 연매출 2151억을 달성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주성씨앤에어는 2022년부터 매년 꾸준히 지속적인 나눔과 기부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현재 총 3억 7천만원을 줄포면사무소에 기탁했다. 기탁금으로 기초수급자 및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 성금 108만원 전달

지난 21일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에 성금 108만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108만원은 전주시 노인복지과 직원 19명이 민생소비쿠폰 10% 나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모은 성금이다.

이날 기부된 금액은 전주지역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1만명에 게 백미와 누룽지, 식료품 등의 꾸러미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영양 상담과 건강관리 정보 제공, 지역 복지지원 연계 등 사후 모니터링

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시와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는 지난달 28일부터 민생소비쿠폰 10% 나눔 프로젝트인 '함께미(米)소(笑)'를 추진하고 있다.

이혜숙 전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전주시 전주함께미(米)소(笑)를 통해 고령자들의 돌봄 안전망 강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기대한다”며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태 기자



남원 동충동, 주민등록증 사진 무료 촬영 진행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자남)는 지난 19일 동충2동 경로당을 방문해 특수시책 '잘잘! 행복 재발급'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주민등록증을 바꾸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하지만, 사진 촬영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충동 취약계층(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행정복지센터는 현장에서 무료 증명사진 촬영과 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

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주민은 “주민등록증을 바꾸고 싶었지만, 사진 찍는 비용과 번거로움 때문에 미뤘었다”라며 “경로당에서 사진 촬영부터 재발급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김자남 동장은 “앞으로 생활 밀착형 맞춤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진안읍기관단체협의회, '소금창고'에 100만원 전달

진안읍기관단체협의회(회장 정상식)가 지난 21일 '소금창고'에 성금 100만원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진안을 주요 기관 및 단체장 34명으로 구성되어 상호 이해증진과 애용화합을 바탕으로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진안읍 기관단체협의회는 8월 월례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소금창고에 100만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과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에 활용될 예정으로, 소금창고를 거점으로 진안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의 특화사업과 나눔 활동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군산 삼학동지사협, 여름나기 건강식 꾸러미 지원

군산시삼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신명옥)와 삼학동행정복지센터(동장 홍종철)가 지난 21일 무더위 취약계층 30가구에 여름나기 건강식 꾸러미를 지원하였다.

이번 사업은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식사를 거르기 쉬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조리가 간편한 건강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명옥 민간위원장은 “영양 많고 소화가 잘되는 음식으로 준비했으니, 어렵고 취약한 환경에 계신 삼학동 저소득 대상자들이 폭염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부음]

김성훈(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씨 모친상

별세일 : 8월 21일
빈소 : 전주시민장례문화원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7)

폭염에 꼭 지켜야 할 자동차 안전수칙

엔진과열 냉각수 점검 하기

에어컨 사용을 위해 배터리 점검하기

폭발, 화재 위험이 있는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라이터, 물병, 손소독제 등은 차에 두지 않기

그늘에 주차하기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기

타이어 공기압 점검 하기

〈一事一言〉



무주 태권도원, 국제 스포츠 외교의 심장으로 뒀다

김관춘
논설위원

아시아태권도연맹(ATU) 본부가 태권도의 성지, 무주 태권도원으로 등지를 옮겨 새롭게 출발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공간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고, 더 나아가 세계 스포츠 외교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역사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

ATU는 아시아 대륙을 대표하는 태권도 기구다.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60%가 집중된 지역으로, 태권도 수련 인구 역시 세계 어느 지역보다 많다.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전세계적으로 태권도 인구는 약 8천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아시아 대륙 수련 인구는 약 5천만 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 수련 인구 다수가 젊은 층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ATU의 상징성과 영향력은 막대해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이러한 조직의 본부가 대한민국, 그것도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용 시설인 무주 태권도원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곧 한국이 태권도의 세계적 중심임을 공인받는 것이자 향후 국제 태권도 외교와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무주 태권도원은 이미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용 시설로, 수련·연수·대회 개최가 가능한 인프라를 갖춘 '태권도 메카'다. 이번 ATU 본부 이전으로 무주는 국제 태권도 네트워크의 허브로 포

지셔닝할 수 있다. 국제대회와 합동훈련은 물론, 각국 협회 간 교류와 세미나가 이어지면서 무주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태권도 교류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다. 세계 각국 협회 관계자들이 무주를 찾고, 정례적인 국제대회와 합동훈련, 청소년 글로벌 캠프가 열리며, 세계 태권도 지도자와 수련생들이 끊임없이 기량을 연마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될 것이다.

이번 이전이 갖는 의미는 태권도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제 스포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다. 스포츠는 이제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 관계를 조율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외교 수단이다. ATU 본부가 한국에 자리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시아 각국과 스포츠 외교의 접점을 크게 넓힐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나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태권도라는 공통분모를 매개로 신흥 개박국 등과 우호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 역시 빼놓을 수 없다. ATU 본부 이전으로 국제대회와 연수 과정이 정례화되면, 매년 수천 명의 외국인 방문객이 무주를 찾을 것이다. 숙박, 교통, 음식, 관광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이 돌고, 무주가 '태권도 특화도시'로 자리 잡으면서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가치까지 높아질 수 있다.

전북도와 무주군이 강조하듯, ATU 본부 유치는 무주가 '태권시티'로 성장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나아가 국기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이전 논의에도 불이 붙을 수 있어, 무주가 종주국 태권도의 상징적 수도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된다.

그런 한편으로 태권도는 전통적 무예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확장장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ATU는 태권도의 e-스포츠화, 인공지능(AI) 심판 도입, 디지털 교육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지향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 시도가 무주 태권도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태권도의 전통과 미래를 동시에 주도하는, 이른바 태권도 종주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할 것이다.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며, 태권도가 21세기형 글로벌 스포츠로 재탄생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번 성과는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 전북도와 무주군, 국회 안호영 의원 등 정치권과 태권도계가 힘을 모아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 끝에 얻어낸 소중한 결실이다. 황인홍 무주군수가 언급했듯, 지역사회의 열정과 노력이 쌓여 비로소 현실화된 결과물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단순한 '본부 유치'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를 실질적인 발전 동력으로 연결해야 한다. 국제대회 유치, 선수와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 청소년 글로벌

캠프와 국제 학술 포럼 운영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이전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무주는 물론 전북 도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오는 9월 3일, ATU 사무공간 개소식과 김상진 회장의 이·취임식이 열리면 이전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다. 이는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라, 세계 태권도 질서가 무주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포츠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의 무주 이전은 태권도의 세계화를 한층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을 국제 스포츠 외교의 핵심 무대로 올려세우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무주가 태권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세계 태권도 수도'로 당당히 서기를 기대한다. 이번 APU 무주 이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무주가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스포츠·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되기를 전북도민과 함께 바란다.

사설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성과로 입증해야

국정기획위원회가 ABCDEF(인공지능,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미래공장) 전략산업에 '규제 제로화'를 더해 새만금을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로 조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육성책을 넘어 전북이 국가 균형성장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기회가 던진 성과는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 새만금은 지금부터 국가 전략의 성과를 가장 먼저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서 있다.

새만금은 이미 291㎢에 이르는 국내 최대 매립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항만·공항·도로 등 국가 SOC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여기에 RE100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능력은 다른 지역이 수년간 준비해야 할 조건을 앞질러 갖췄다. 따라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K-방산 테스트베드, 의료용 헬프 산업, K-푸드 수출허브 등 차세대 산업 실증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메가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제샌드박스와는 차원이 다르다. 특정 기업이나 제한적 사업에만 적용되던 규제 특례가 아니라, 광역 단위 전체를 포괄하는 전면적 규제 재설계가 핵심이다. 기업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신산업을 현실화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전북도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ABCDEF+G(글로벌 메가샌드박스)' 비전을 수립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적절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속도다. 새만금은 지난 수십 년간 지체된 개발 역사 때문에 도민에게

'느린 지역'으로 인식돼 왔다. 이번에도 준비만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그 누구도 새만금을 혁신의 전초기지로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당장 하반기부터 규제 특례 목록 구체화, 국회·정부 공동 건의,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가 완벽되기 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먼저 보여주겠다는 전북도의 계획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 역시 속도전이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국내외 선도 기업들은 단기간 내 입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미 투자 의향을 밝힌 기업들이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전북이 선제적으로 제도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눈길을 돌린다.

새만금이 '국가 실험무대'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집중된 첨단산업구조를 재편하고 대한민국의 균형성장 전략을 가시화하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새만금에서 규제 제로 환경과 첨단산업 실증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는 지역 격차 해소와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례가 될 것이다.

새만금은 더 이상 '미래의 땅'이라는 구호성 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이 시점에서 '현재의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전북이 균형성장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이 첨단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는 새만금의 성패에 달려 있다. 정부와 전북도는 이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과감한 실행으로 답해야 한다.

문화재열전



고창무장동헌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정치국방, 궁궐·관아
-지정일- 1973년 6월 23일
-시대- 조선시대
-소재지- 고창군 무장읍성길 45
(무장면, 무장읍성)

▲오늘의시

어쩌다 나는 / 류근

어쩌다 나는 당신이 좋아서
이 명량한 햇빛 속에서도 눈물이 나는가.
어쩌다 나는 당신이 좋아서
이 깊은 바람결 안에서조차 앞섰지 마르지 않는가.
어쩌다 나는 당신이 좋아서
이 무수한 슬픔 안에서 당신 이름을 씻으며 사는가.

어쩌다 나는 당신이 좋아서
이 가득 찬 목숨 안에서 당신 하나 여의며 사는가.
어쩌다 나는 당신이 좋아서
이 삶 이토록 아무것도 아닌 건가.
어쩌다 나는 당신이 좋아서
어디로든 아낌없이 소멸해 버리고 싶은 건가.

시인 약력 : 1966년 충주 출생.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시인으로 등단했다. 등단 18년 만인 2010년, '상처적 체질'을 첫 시집으로 출간했다.

대학 재학 중 쓴 노랫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이 김광석에 의해 불렀다. '함부로 사랑에 속아주는 버릇', '싸나희 순정', '사랑이 다시 내게 말을 거네', '상처적 체질', '어떻게든 이별' 등의 작품이 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전북도민일보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 (발행우) 54990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 (발행우) 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송천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BT

전북타임스

미래를 향해 , 진실만을 보도 합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 구독신청 282-9603

쓰레기를 새로운 가치로 본다

김제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새로보미' 축제 개최

올해로 3회째 추진되는 새로보미 축제가 자원순환 문화를 생활 속으로 확산시키며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3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환경부 주관으로 오는 9월 5일에 개최하는 정부 공식 행사인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개최지로 김제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자원순환의 날이 수도권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개최지 공모에서 세종시, 청주시, 양평군과의 경쟁에서 이룬 쾌거로 더욱 의미가 크다.

시는 자원순환 문화를 생활 속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로 3회째 새로보미 축제를 기획하고 있으며 특히 오는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과 더불어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개최지로 최종 선정돼 새로보미 축제를 전국규모 환경 행사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종량제 시행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환경부 주관 국가 기념행사와 김제시 자체 축제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호 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부터 김제시가 환경부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개최지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김제시,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 확인!

정성주 김제시장은 민선8기 취임식 이전에 환경미화원과 함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첫 공식 일정으로 추진할 정도로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깨끗한 김제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취임 첫해에는 새로보미 축제뿐만 아니라 자원순환 시민 전문가를 양성해 시민들을 찾아가서 교육하는 체험 교실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왔다.

실제 시는 종량제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 감소율이 전국 평균 5%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23%를 달성하였으며, 재활용률도 전국 평균 36%를 상회하는 54%로 나타나, 자원순환 실천 성과가 매우 우수한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새로보미축제', 전국 최대 규모 환경 축제로도 약

지난해 열린 제2회 새로보미 축제는 80여 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인식 제고와 생활 속 실천 확산에 이바지했으며, 환경부 및 타 지자체의 선진사례로 선정되어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23년 5천만원 규모로 시작한 축제 예산은 올해 대비 5천만원을 포함한 총 2억 9천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여기에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 공모에 선정되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환경 축제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9월 5일~6일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환경부 주관 '제7회 자원순환의 날'
개최지 최종 선정

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김제 실내체육관 및 시민문화체육공원 일대에서 열릴 이번 행사는 90개 이상의 자원순환 체험·전시·교육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정크아트 전시, 재활용품 교환소 운영,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자원순환 교육관 및 참여 체험부스 등 모든 세대가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환경 교육 축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업무 협약기관 협력 체계 구축으로 내실있는 행사 추진

이번 축제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교육지원청,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 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도 이번 축제의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 한국배터리순환지원협회 등도 함께 축제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자원순환 관련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업무 협약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단체인 강살리기네트워크, 그린스타트네트워크 및 새마을회 등 다양한 지역사회 단체들도 참여해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며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축제를 더욱 내실있게 구성해가고 있다.

전국 행사 최적화 도시 '김제'

행사 장소인 김제 실내체육관은 1,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전국 규모의 행사를 개최했으며, 축제 부지인 시민운동장 일원은 새로보미축제, 꽃빛드리 축제 등 대규모 시민 참여를 성공적으로 검증한 장소다.

익산역 KTX에서 셔틀버스 운영, 서해안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 등의 접근성, 버스터미널·김제역의 근접성 등 전국 어디서든 방문이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전국 단위 행사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시는 환경부 및 주관기관인 한국폐기물협회와 협의해 지상파 및 주요 언론, SNS, 지역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행사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쓰레기도 자원(돈)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축제 #환경 축제의 모델이 되는 축제 #전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성주 시장은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김제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김제시를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자원순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게 많은 국민분들이 김제에서 쓰레기 배출부터 재활용까지 직접 체험하고 중요성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윤봉기 기자





전북타임스신문

독자들에게 신뢰받는 정보를 제공 하며,

미래를 향한 발전과 혁신을 지향 합니다

D 전북타임스



<https://www.jeonbuktimes.co.kr>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금암동) 5층